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석에서의 차이 비교를 통한 탐색

강태중(姜泰重)*

논문 요약

이 논문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 경향을 함께 비교하였다. 학생 개인의 요인과 가정 배경, 학교 소재 지역 등을 통제하였을 때, 중학교 3학년에서는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더 큰 경향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준화정책은 중학교 단계에서 고입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급의 이질성 등의 문제를 가져와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런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논문에서는 평준화정책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사교육비 지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들이나 이 논문의 분석에서 확인했던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의 차이(또는 차이 없음)는 사실 평준화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 정책의 영향을 능가하는 제3의 요인(대입 경쟁 요인, 지역사회의 사교육 현실 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평준화정책과 사교육 관계를 구명하려는 연구는 지역간 비교 방식이 아닌 다른 접근 방식도 찾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주요어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사교육, 사교육비, 정책분석

* 중앙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이 논문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를 분석하고 추론한다. 평준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관여하는 입학 정책이다.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한다는 통념을 받아들인다면, 평준화정책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 앞둔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학교의 속성(학생 구성, 교사들의 인식 등)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예상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우리 사회는 사교육비 문제를 교육 분야의 가장 심각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그리고 입시제도는 그 문제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본다. 이런 환경에서 입시제도가 사교육 행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려는 연구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듯하다. 그러나 그런 연구는 아직 드문 편이다. 관심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증 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아마도 데이터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관계를 분석하려면 입시 제도의 흐름을 따라 사교육 행위 변화를 추적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는 입시제도와 사교육의 관계에 개입하는 다른 관련 변인들도 측정해 지니고 있어야 한다. 관련 변인들을 통제하고 나서야 입시제도의 영향을 순수하게 추출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데이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교적 최근에 생산되기 시작한 종단적 패널 데이터들은 이와 같은 연구 여건을 다소 개선해주고 있다. 비교적 엄밀한 분석 모형으로 정책의 종단적 영향을 분석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기여하는 데이터 가운데 하나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일 것이다. 이 자료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에서 출발하여 2006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학생들의 사교육 행위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가는 동안 사교육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며, 이때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연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선행 연구들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에 대해 엇갈리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평준화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점이 있다고 보고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이런 혼선은 연구들이 사용한 데이터(표집)의 성질이나 분석 모형(변인 통제)의 차이에서 오는 점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차이들을 감안하여 좀 더 균형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평준화정책은 실지로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고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 입학 경쟁을

완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이질적인 학급을 가져오는 등 학교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사교육 수요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반된 가능성은 학교급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중학교 수준에서는 평준화정책이 고등학교 입학 경쟁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사교육 수요가 누그러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평준화정책이 학교 교육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을 연계하며 분석함으로써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고등학교 단계에 분석을 국한시켜 왔다. 이 연구는 이 점에서도 기여하고자 하는데, 중학교 단계와 고등학교 단계의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좀 더 확장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체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를 추정하거나 그 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조사하는 연구(한국 교육개발원, 2003; 김미숙 외 2006), 사교육(즉, 비용 투자)이 실지로 학업 성취나 경쟁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낳는지 분석하는 연구(이종태 외, 2002),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연구 등이다. 이 연구는 마지막 범주의 문제를 다룬다. '지역'(학교 소재지)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지 분석하려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에 주목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찾는 연구들은 가계 경영이나 소비에 관심을 두는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김인숙, 여정성, 1996; 유형선, 윤정혜, 1999; 박미희, 여정성, 2000, 이성림, 2005 등). 이 연구들은 대체로 가계 지출에 관련될법한 가정 요인들이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지 살피고 있다. 이들이 거의 예외 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가계 소득이나 자산, 주택의 소유 형태 등을 변인으로 잡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 설명에 투입한 결과로, 그 변인들의 뚜렷한 설명력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다른 가정 배경 요인들도 검토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그런 변인으로 완전하게 치환되지 않을 변인들, 예컨대 부모의 학력 등도 사교육비 지

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녀의 연령과 수, 성별, 출생 순서 등이 사교육비 지출에 작용하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자녀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자녀의 수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을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자녀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줄이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성과 출생 순서의 영향은 연구에 따라 의의 있게 나타나기도 하고 미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가정 요인과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그 요인에 포괄될 수 없는 요인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일관된 연관을 보이는 변인은 거주지역(또는 학교 소재 지역)이다. 거주지역의 영향력은 국가 수준의 사교육비 규모를 조사하는 연구들에서도 지역별 지출액 평균의 차이로 시사되기도 하지만, 개인(가구) 수준의 연구(분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때 지역의 영향은 가정의 다른 요인들(가계 소득, 부모 학력 등)을 통제한 분석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비슷한 가정환경 이더라도 거주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때 지역은 대체로 도시화 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도시 지역이 시골 지역에 비하여 지출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의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려고 할 때 기존 연구들은 일관된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사교육비 규모의 지역별 차이를 보고하는 국가 수준의 조사 연구들은 광역시와 일반 '시' 사이의 지출 차이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강상진 외, 2005; 채창균, 2006; 교육인적자원부, 2007; 통계청, 2008). 지역의 도시화 정도 외에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같은 도시화 수준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박기백, 1998; 이은우, 2004).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학생 개인 요인들을 비교적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의외이다. 사교육비 투자가 학생 당사자들의 진로나 교육 계획, 학업 역량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탐색 연구에서 자연스러울 듯하다. 그러나 가계 소비나 가정 관리 등에 대한 관심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가정 배경 요인들에 주목하는 데 비하여 학생 개인 요인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 요인의 경우 학생의 성이나 출생 순위, 연령(학교급) 등을 고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예컨대, 김인숙, 여정성, 1996; 유형선, 윤정혜, 1999; 박미희, 여정성, 2000; 이성림, 2005). 학생들의 진로 계획이나 학업 성취도가 사교육비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검토하는 데는 미흡한 편이다.

이런 경향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 아래서 사교육비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거나 사교육비 설명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들에서도 볼 수 있다. 대부분 연구들이 학생 개인의 성,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성상의 특징, 거주 지역 등을 분석에서 고려하고 있지만, 학생 개인의 성적이나 진로 계획 등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김현진, 2004; 김현진, 최상근, 2004; 채창균, 2006; Kim, 2004). 분석에 동원할 수 있는 데이터의 조건이 이런 한계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성취도 변인을 갖춘 자료들이 그동안 드물었기 때문이다.

성적이나 진로 관련 변인들을 갖춘 데이터를 분석했던 연구 가운데는 그 변인들을 분석에 투입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학생 개인 성취도나 진로가 사교육비(또는 사교육 참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예컨대, 양정호, 2003; 2004), 그 변인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예컨대, 백일우, 1999; 강상진 외, 2005; 노현경 2006). 이와 같은 비일관성이 왜 나타나는지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학교급별 차이일지 모른다는 점이다. 중학생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 그 영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고등학생 집단에 서는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테면 비슷한 모형의 분석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표집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양정호의 두 연구(2003; 2004)가 그런 짐작을 하게 한다. 물론 다른 요인이 개입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분석 데이터에 대한 기술이 모호하여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연구에 따라서는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 분석 표집으로 삼은 것이 있는가 하면(예컨대, 백일우, 1999)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하여 분석 표집으로 삼은 것도 있다(양정호, 2003; 2004). 이런 차이도 분석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이 분명한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여기 분석에서는 학생 개인의 성취도나 진로 계획 등의 변인을 포함할 이유가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통념적으로도 수긍할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도 이미 시사되어 왔다(Becker and Tomes, 1986).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교육비 관계 분석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란이 활발했던 만큼 그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그 분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포착하기가 어렵다. 평준화정책이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에 관한 정책이고, 입학생을 학교에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요소를 가진 정책이지만, 실지 정책 적용은 시·도에 따라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 적용 지역의 구획 또한 동일하지 않았다. 예컨대, 어떤 지역(예컨대, 서울)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지원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예컨대, 제주)에서는 허용하였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적용 지역(학군이나 '시') 밖의 학생들에게 적용 지역 진입을 허용했는가 하면(예컨대 경남), 다른 곳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예컨대 서울). 이런 차이들을 하나하나 감안하며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분석해내기는 쉽지 않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연구를 어렵게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정책의 영향을 다른 요인

의 영향과 엄밀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평준화정책의 영향은 두 측면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정책 적용 전과 후의 차이(또는 정책 적용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 차이가 현격하면 평준화정책이 어느 모로든 작용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비교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평준화정책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일 리 없다. 다른 많은 요인이 개입해 있다. 이 잡음 요인들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추출해내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고무해왔다. 일차적으로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미쳤을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강태중, 성기선, 2001; 이주호, 홍성창, 2001; 강태중, 2002; 이주호, 2002; 김기석 외, 2005; 강상진, 2005, 강상진 외, 2005; 한국교육개발원, 2005). 대체로 평준화정책을 적용하는 지역과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달리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평준화정책이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에서도 접근 방식은 성취도에 대한 분석의 경우와 같았다. 정책의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을 비교할 때 사교육비 지출 규모(또는 사교육 참여)가 차이 나는지 분석하였다. 물론 지역간 차이에 개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여 가능한 한 순수하게 정책 효과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시도들이 내놓은 결과들은 아직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평준화정책이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이주호, 홍성창, 2001; Yoon Ha Yoo, 2003; Taejong Kim, 2004).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지출보다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차이를 평준화 정책이 초래했다고 추론한다. 평준화정책이 학급의 이질성을 증가시키는 등의 결과로 교실 수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교원이나 학교의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추론한다.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들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다(김현진, 최상근, 2004; 강상진 외, 2005; 채창균, 2006; Kim, 2004). 두 지역 사이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교육비 차이는 학생 개인의 요인이나 가정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평준화정책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방법이나 모형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요컨대 학생 개인이나 가정 배경의 요인들을 통제하고 나면, 지역간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 결과가 갈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우선, 논리적으로 보면, 두 방향의

분석 결과가 평준화정책과 관련해서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 평준화정책은 사교육비 지출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요인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지출을 부추길 요인도 지니고 있다. 당초 정책 취지에서도 언급한대로, 입시제도로써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고등학교 진학 경쟁을 누그러뜨릴 것이다. 경쟁이 약화되면 사교육 필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완된 경쟁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사교육 욕구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학교별 학생 구성을 다양하게(이질적이게) 만들며, 학교별로 자원을 배분하는 데 경쟁 원칙이 아닌 균분 원칙을 채택한다. 결국 학교 운영과 분위기를 안이하고 소극적이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학생(학부모)들의 사교육 수요를 키울 수 있다. 결과가 다른 두 연구 경향은 평준화정책의 다른 측면을 각각 포착하고 있을지 모른다.

분석에 사용한 표집(데이터)이나 변인 통제 정도 등도 연구 결과가 달라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모두 고등학생 표집이지만, 일반계 고등학생에 국한한 경우도 있고 실업계 고등학생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언급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교육비 변인의 기술 통계값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 표집으로 삼은 연구도 있고 이런 한정을 하지 않은 연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차이를 보기 전에 다른 관련 변인을 통제 하는 정도에서도 연구들은 다르다. 짐작할 수 있듯이, 두 지역간 차이가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는 연구들은 실업계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일반계 학생만 분석에 포함하고 있으며, 평준화 변인 외 다른 변인 통제에서 좀 더 엄격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학생과 학교 수준 변인을 가장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강상진 외(2005) 연구의 경우, 그 통제는 과도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수준이다. 예컨대, 사교육비 부담 의사를 포함하여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지원할 의지 등도 통제하고 있다. 이런 변인이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매개한다고(평준화정책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지출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통제하는 것은 평준화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삭감해버려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평준화정책과 사교육비 관계에 관련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더 점검해보도록 시사한다. 하나는 학생 개인의 성취도나 진로 등의 변인을 포함해서 분석상의 통제를 좀 더 균형 있게 구성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보일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선행 연구들의 대립되는 결과를 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 시사점은, 이제까지 분석되지 못하였던 바, 중학교 단계(표집)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당연히 중학교 단계 교육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이제까지 분석에서 검토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가는 과정에 사교육비 지출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때 변화는 평준화정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피는 작업은 연구의 지평을 더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다르지 않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연구들처럼 그 탐색을 고등학교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중학교 단계까지 확장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 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 ②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달리 나타나는가?

위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이 연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탐색할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들과 대조하며, 이 연구가 분석에 포함시킨 개인 또는 학교 수준 변인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분석 추론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이 정책의 어떤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살필 것이다.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최대한 읽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측면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연관 속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
- ④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을 가진다면, 그 과정이나 맥락은 어떤 것인가?

이 연구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비교 분석하는 시도를 통하여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와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중학교 3학년 표집(cohort)에 대한 1차년도(2004년, 중3)와 3차년도(2006년, 고2) 조사 결과이다. 이 자료는 중학교 3학년 때 지출한 월 사교육비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지

출한 사교육비 규모까지 조사해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선행 연구들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한 가정 배경 요인들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있고,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통제했던 학생 개인의 성취도나 진로 관련 변인들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충실하게 확보된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여기 분석의 초점이다. 학생 개인과 가정 배경의 차이 그리고 학교 소재지역의 차이를 통제하고도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적용 여부가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 의의를 지니는지 주목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회귀분석(OLS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할 것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가 학생과 학교를 연계하고 있어서, 다층분석을 시도할 만하지만, 학교별 학생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개인 수준에서 변인을 통제하는 데 작지 않은 제약을 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분석상의 통제를 엄격하게 시도하려는 만큼 이 제약은 우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패널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의 분석을 연계하려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초점인데, 표집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교로 퍼지게 되면서 학교당 학생 수는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 다층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진다¹⁾. 이런 여건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며, 다만 중학교 단계에서는 다층분석(위계적 선형모형)도 병행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투입하는 변인들은 아래와 같다.

가. 종속 변인

월 평균 사교육비(만원 단위)의 자연로그 값(‘월사교육비LN’)이다. 월 평균 사교육비 규모는 가구별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각각 조사했다. 학교급별로 별도의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학교급에 따라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며 평준화정책의 영향 변화를 읽어보고자 한다.

1)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중학교 3학년 표집(cohort)(2,000명)은 단계적 유층별 무선 표집의 방식으로 당초 100개 학교에서 20명씩(4학급에서 5명씩, 학급수가 부족한 경우 있는 학급당 표집 수 증가) 추출하여 구성되었다. 그러나 변인(조사 항목)에 따라 무응답이나 오답 경향이 다른 바, 여기 분석에서 이런 오류 등을 정리했을 때 학교당 학생 수는 5~20명이 되고, 평균은 17.9명(총 1,789명)이 된다. 이런 조건이라면 제한적이거나 다층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당초 100개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은 564개 고등학교로 흩어진다. 결측 등의 문제를 정리하고 냈을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수는 5명 미만(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약 3.1명)으로 줄어들어, 다층 분석을 시도할 수 없는 표집 조건이 된다.

나. 독립 변인

1) 학생 개인 변인

중학교 3학년 사교육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서는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할 예정인지 여부('일반계진학예정', 더미 변인)와 전교에서의 석차('전교석차점수', 100-석차백분위)를 개인 특성 변인으로 투입한다. 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확보한 것이고, 후자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확보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변인들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못했지만, 학생의 학업 능력과 진로 계획은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관련을 지닐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사교육비를 분석하는 모형에서는 능력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 변인으로 여전히 '전교석차점수'를 사용하면서, '일반계진학예정' 변인은 '일반계진학더미' 변인으로 대체하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이미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했는지 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계열 고등학교에 입학했는지는 앞으로 진로 계획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진로 계획은 대학 진학과 결부되므로 사교육비 지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병행해서 '대학진학 계획' 더미 변인은 중학생 분석을 포함하여 모든 분석에 투입한다.

2) 가정 배경

보호자의 학력과 월 평균 소득액(만원 단위)의 자연로그 값을 투입한다. 학력은 일차적으로 아버지(남자 보호자)의 학력을 채택하였고, 아버지 학력이 조사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학력을 대신 사용하였다. 무학에서 대학원(박사)까지 1-8점의 값을 가지고 있다. 월 평균 소득액은 가구 전체의 소득을 뜻한다. 두 변인은 모두 가구 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것이다. 아버지 학력은 첫 조사 연도인 중학교 3학년 대상 조사 때 확보된 자료이며, 월 평균 소득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각각 조사되었다.

3) 학교 소재 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행정구역상의 '시'를 각각 더미 변인으로 투입한다. 읍과 면 지역이 기준 변인이다. 이 변인들은 '평준화 지역' 더미 변인과 함께 중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예비적인 분석 결과 그 문제(상관)가 심각하지 않았고(변인들 사이의 상관 계수는 <부록 표 1> 참조), 그 변인들을 투입하는 것이 분석 결과를 교란시키지도 않았다²⁾.

2) 이와 같은 1차적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회귀분석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지 좀 더 엄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SPSS가 제공하는 공선성 진단(collinearity diagnostics) 통계값들을 바탕으로 점검해본 한에서는, 여기 분석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변인별로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분석의 경우 1.025(진로 관심 교사 비

4)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

평준화 지역을 더미 변인('평준화 지역')으로 만들어 투입한다. 평준화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기준 변인)에 대하여 평준화지역이 사교육비 지출에서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게 된다.

5) 학교의 속성

학교 속성 변인은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나타날 경우('평준화 지역'이 통계적 의의를 지니는 경우) 그 차이(영향)가 학교 관련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지 보기 위하여 투입한다. 투입하는 변인은 두 가지로, 학교의 전체 학생 수의 자연로그 값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평가 결과이다. 학교나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그들이 인식하는 학교 교육의 질을 나타낼 것이다. 교사들이 잘 가르치는지, 나의 진로에 관심을 주는 교사가 있는지 등 묻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인식)으로 구성되었다.

두 변인의 선택은 예비 탐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탐색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분석 논의 과정에서 기술한다.

분석에 투입한 변인들의 기본 통계 값들은 <표 1>과 같다.

IV. 분석과 논의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할 시기이다. 사교육이 진학 경쟁에 따라 가열된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받아들이면, 입시제도가 경쟁을 조성하는 경우에 사교육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평준화정책을 두고 말하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의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당락 경쟁이 없는(선발 인원과 지원자 수가 비슷한) 상황인 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 단위 경쟁이 이루어지므로 이른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중학교 3학년의 사교육 행위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더욱 번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분석 결과는 이런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표 2>는 중학교 3학년 때 사교육비에

울)에서 4.994(광역시 더미) 분포를 보이고, 고등학교 2학년 분석의 경우 1.056(교사 수업 평가)에서 4.097(광역시 더미) 분포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는 10.0에서 큰 거리가 있고, 각 분석에서의 분산확대지수 평균값도 각각 2.357(중3)과 1.954(고2)로 일반 기준인 1.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고유치(eigenvalue)와 공선조건지수(condition index)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 변인의 변량 비율(variance proportions)을 살펴보다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여기 분석을 부정할 정도는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표 1> 분석에 사용한 변인들의 내용과 기술 통계값

변인 이름	정의(측정)	평균(표준편차; N)	
		중학교 3년	고교2년
월평균 사교육비ln	월 평균 사교육비(만원 단위, 자연로그 값)	3.06 (1.46; 1946)	1.55 (1.81; 1557)
전교석차점수	중3 때 석차점수(100-석차백분위)	51.25 (27.92; 1779)	51.25 (27.92; 1779)
일반계고 진학	일반계고고 진학 더미(중3은 진학 예정)	.75 (.44; 2000)	.72 (.45; 1858)
대학진학계획	대학진학 계획 더미	.91 (.28; 2000)	.87 (.33; 1724)
보호자 학력	아버지 학력 (1-8점)	4.37 (1.25; 1947)	4.37 (1.25; 1947)
월소득ln	월평균 소득(만원 단위, 자연로그 값)	5.52 (.69; 1933)	5.47 (.86; 1568)
서울	서울 지역 더미	.20 (.40; 2000)	.19 (.39; 1681)
광역시	행정구역 구분상 '광역시' 지역 더미	.28 (.45; 2000)	.28 (.45; 1681)
시	행정구역 구분상 '시' 지역 더미	.41 (.49; 2000)	.34 (.47; 1681)
평준화 지역	평준화 지역 더미	.64 (.48; 2000)	.63 (.48; 1746)
학생수ln	재학 학교 전체 학생수(자연로그 값)	6.59 (.76; 2000)	6.82 (.62; 1746)
진로 관심 교사 비율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학교단위 집계)	.52 (.16; 2000)	—
교사 수업 평가	국영수 교사 수업에 대한 1-5점 척도 평가 (학생인식, 3-15점)	—	10.05 (2.04; 1690)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³⁾. 표의 가운데 칸(‘평준화 영향 분석 모형’)을 읽어 보면,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진로 계획, 가정 배경, 학교 소재 도시의 크기 등을 통제한 후에도 ‘평준화 지역’ 변인의 계수는 통계적 의의를 유지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와 진학 계획이 비슷하고 가정과 거주 지역의 환경이 비슷한 경우라도, 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3학년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분석 결과는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변인별 계수 크기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그 크기 순서에 변함이 없고, 통계적 의의도 비슷하다. 다만 ‘평준화 영향 설명 모형’에서 ‘진로 관심 교사 비율’의 통계적 의의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했을 때 유지되지 않았다.

<표 2> 중학교 3학년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평준화 영향 분석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평준화 영향 설명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상수	-2.875 (.250)**	-4.000 (.381)**
전교 석차 점수	.003 (.001)**	.004 (.001)**
일반계고 진학 예정	.345 (.078)**	.330 (.078)**
대학진학 계획	.297 (.116)*	.299 (.115)**
보호자 학력	.117 (.027)**	.097 (.027)**
월소득 ln	.790 (.048)**	.772 (.048)**
서울	.316 (.140)*	.045 (.148)
광역시	-.034 (.134)	-.338 (.145)*
시	.138 (.104)	-.170 (.120)
평준화 지역	.388 (.092)**	.198 (.101) [†]
학생수 ln		.286 (.058)**
진로관심 교사 비율		-.387 (.184)*
R ²	.310	.321

** P < .01 * P < .05 † P < .10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중학교 단계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가정을 부정하는 <표 2> 결과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대안적인 설명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료의 한계가 낳은 결과라고 일축할 수 있다. <표 2>에 보고한 분석은 가정 배경과 학교 소재지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속성까지 통제하고 있어서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비교적 엄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서 도시와 시골 사이의 차이를 평준화정책이 작용하는 부분만 빼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평준화 지역(즉 상대적으로 큰 도시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준화정책에 관련된 현상이 아니라, 시골 지역에 비하여 도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특징(예컨대, 더 많은 사교육 기회와 경쟁 분위기 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가능한 설명은 고등학교 입학 경쟁이 평준화 지역에서 약할 것이라는 가정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평준화 지역에 못지않은 경쟁이 평준화 지역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론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서울과 광역시 등 큰 도시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고, 이런 도시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특수한 학교들(특수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이 학교들은 경쟁 입학 대상이 되며, 이 때 경쟁은 실지로 범도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쟁이 견인하는 사교육 풍토가 평준화 지역에 충분히 팽배할 수 있다. 비교적 작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평준화정책

을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인근 시골 지역에서의 전입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경상남도의 평준화 지역인 마산, 창원, 진주 등은 각각 하나의 학군으로서 도내 다른 도시나 읍·면 지역 학생의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 이 경우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비적용 지역과 유사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설명은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이 더 일어나는 것이 진학 경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비판하는 연구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주호, 홍성창, 2001; Kim Taejong, 2004). 평준화정책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사교육 수요를 키우고 사교육비 지출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고등학교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악화되는 만큼 중학교에서 학교간 경쟁도 악화되기 때문에, 평준화 지역 중학교 교육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 대안적인 설명 가운데 여기서 간접적이거나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설명이다. 즉,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큰 것이 그 지역 학교의 요인 때문인지 탐색해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질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평준화 지역’ 변인에 실린 회귀계수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시도는 탐색적으로 이루어졌다. 모형에 최종적으로 투입된 두 변인 외에 학생들이 인식한 학교 만족도, 수준별 수업 시행 여부, 일반계고교 진학률 등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며 평준화 지역 변인의 영향력을 대체하는지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찾은 변인은 학교의 크기를 나타내는 전체 학생수(자연로그) 변인과, 학교에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학교 수준 변인) 변인이다. <표 2>의 ‘평준화 영향 설명 모형’ 칸에 정리한 것이 이 두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학교가 클수록,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보는 학생 비율이 작을수록,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두 변인의 영향이 평준화 지역 변인의 영향(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큰 경향)을 거의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가 더 지출되는 경향은 그 지역 학교 크기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즉,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실이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 진로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이 점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분석 결과는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일

관된다. 평준화가 학교 교육의 부실을 낳고 이 부실이 사교육 수요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조응하는 셈이다. 반면, 평준화 지역의 학교가 상대적으로 크고(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이 점이 사교육비 지출을 키운다고 시사하는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학교의 크기는 평준화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긍하는 입장에서 보면, 평준화정책 아래에서 학교는 학생을 충분히 배정받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 규모' 이상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큰 학교에서는 익명성이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학교 교육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학교 크기는 단순히 지역사회 학생 인구 크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학생 인구가 많으면 필경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고 이 시장 발달이 사교육 수요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로서 밝히기는 어렵다. 좀 더 세밀한 자료와 분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의 분석 결과는 평준화 지역 중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평준화가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에는 어긋나는 결과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분석은 중학교 3학년 때 지출에 대한 분석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표 3> 가운데 칸('평준화 영향 분석 모형')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 평준화 지역의 효과가 통계적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러서는 사교육비 지출에서 평준화정책 적용 여부에 따른 지역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 개인적 특징이나 가정 배경에서 비슷한 학생들이면 평준화 지역이건 비평준화 지역이건 사교육비 지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이 중학교 때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을 단순히 자료나 분석이 불안한 이유로 돌릴 수는 없을 듯하다. <표 3>의 결과는 '평준화 지역'의 계수가 중3 분석 때와 다른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관된 통계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성취도가 우수할수록 그리고 가정이 부유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서울 지역이 사교육비 지출에서 강세를 보이는 점도 보여준다. 이런 현상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달라지는 사교육비 지출 양상에 대해서 우선 현재의 분석 결과 안에서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할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학교급에 따라 '평준화 지역'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평준화 영향 분석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거주 지역을 통제했을 때 평준화 지역의 영향은 중학교 3학년에서 뚜렷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사라진다.

<표 3> 고등학교 2학년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평준화 영향 분석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평준화 영향 설명 모형 회귀계수(표준오차)
상수	-3.110 (.295)**	-3.005 (.624)**
전교 석차 점수	.006 (.002)**	.006 (.002)**
일반계고 진학	.579 (.120)**	.609 (.121)**
대학진학 계획	-.002 (.144)	.008 (.144)
보호자 학력	.131 (.039)**	.128 (.039)**
월소득 ln	.519 (.055)**	.517 (.055)**
서울	.744 (.197)**	.705 (.205)**
광역시	.319 (.186)	.295 (.193)
시	.467 (.140)**	.437 (.152)**
평준화 지역	.222 (.142)	.213 (.145)
학생수 ln		.045 (.089)
교사 수업 평가		-.039 (.022)†
R ²	.213	.214

** P < .01 * P < .05 † P < .10

이런 변화는 평준화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평준화정책은 고입 경쟁을 없앴으로써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 수요를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구성의 이질성을 증가시키는 등의 결과로 학교 교육 환경을 악화시켜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가 맞는 것이라면, 사교육비에 대한 평준화 지역의 영향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정적으로 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가 예상에 어긋나는 이유를 이 연구에서 찾아내기는 어렵다. 다만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이유를 추론한다면 두 현상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평준화 지역에서 더 크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아야 하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그런 차이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중학교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서 이미 언급했듯이, 고등학교 입학 전 단계에서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평준화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진학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른바 명문 학교 수는 절대적으로 줄었다. 그런 학교들이 대체로 비교적 큰 도시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평준화 지역 확대와 더불어 명문의 휘광을 잃고 경쟁의 표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비평준화 지역에서 진학 경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치열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결국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이웃 학교’에 큰 경쟁 없이 진학하게 되는 양상이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평준화정책에 대한 보완

의 명분으로 평준화 지역에는 경쟁 선발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학교들(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이 적지 않게 생겨났다. 고등학교 진학 경쟁은 오히려 평준화 지역에서 더 치열해질 여지가 생겨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 수요는 평준화 지역에서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평준화 지역이 사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목전에 다가온 대입 경쟁의 영향력이 지역간 차이를 덮고도 남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즈음에 이르면,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행위가 제도나 학교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전국 어디서나 학생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의 요인이 허용하는 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평준화 지역 여부가 사교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추론은 아직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추론을 받아들인다면, 평준화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논의해 온 선행 연구들의 논리는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 평준화정책을 비판하건 옹호하건 선행 연구들은 하나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평준화정책이 학교 교육의 질(환경)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사교육 지출을 늘리거나 줄일 것이라는 전제이다. 그러나 여기의 분석 결과는 이런 전제를 다시 검토해보도록 요구한다. 평준화정책은 학교 내부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학교 외부에 다른 경쟁 환경을 초래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대입 경쟁과 같은 거대한 요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장(磁場) 안에서는 그나마 독자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지 모른다.

V. 맺는말

이 연구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학생들에 대하여 중학교 3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 종단적으로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분석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로만 보면, 평준화의 영향은 학년(학교)급에 따라 달리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등학교 2학년 단계에 이르면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차이가 사라진다. 이런 결과는 평준화정책이 사교육에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영향 방식과 상반되는 것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낮고, 고입 경쟁이 살아 있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분석 결과는 그 역임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단

계에서는 평균화가 학교 교육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사교육 수요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석 결과는 이 경우에도 예상을 벗어나 지역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 보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거의 없었으므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들을 살펴보면, 비교적 큰 표집을 엄밀한 통제 아래 분석 한 연구들은 평준화 지역의 영향이 의미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예컨대, 강상진 외, 2005; 채창균, 2006). 평준화정책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이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 연구들은 평준화 변인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박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비슷한 경우, 평준화 지역 학생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하여 사교육비를 더 지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이 분석한 고등학교 2학년 경우를 보면, 여기에서의 분석도 이런 반박을 지지해준다. 개인 특성이나 가정 배경 등을 통제하고 나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평준화 지역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준화 변인 외에 통제에 동원한 개인수준의 변인들의 작용도 선행 연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결과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대조할 때 다른 시사를 던진다. 선행 연구들은 평준화 변인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를 고지식하게 해석한다. 평준화정책이 학교 교육을 특별히 어렵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평준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시도한 중3에 대한 분석은 평준화정책이 사교육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한다.

중3 단계에서 사교육비는 예상과 달리 평준화 지역에서 더 지출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런 경향은 지역별 학교 크기(학교별 학생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평준화정책이 입시 경쟁 완화라는 목적과 기대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평준화정책이 초래한 학교 교육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학생 인구가 다른 데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때 학생 인구 차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책에 관련된 요인이기보다는 지역의 구조적 여건에 관련된 요인이라고 보면, 평준화 지역의 높은 사교육비 지출 경향은 평준화정책에 의해 빚어진 것이라기보다 지역적 환경에 의해 빚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교육에 대한 평준화 정책의 고유한 영향력(특히, 학교 교육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행사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앞 장에서 논의한대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분석도 이런 짐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추론을 연장하면, 평준화정책과 사교육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지역간 비교를 시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말 할 수 있다. 지역간 비교 연구들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정책의 영향에 따라 변별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만약 두 지

역 모두 학생 인구 분포나 대입 경쟁과 같은 좀 더 포괄적인 요인의 영향 아래 같이 묶여 있다면, 기존 가정은 무너진다. 이 연구 결과는 이 가능성을 시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평준화정책이 아닌 다른 더 큰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시사한다.

이런 시사를 던지는 것이 물론 이 연구가 지니는 한계 때문일 수 있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사이의 차이를 통해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순수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다른 잡음 변인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지역별 비교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그와 같이 엄밀하게 통제된 분석을 토대로 위와 같은 추론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 연구는 그런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기면서, 사교육에 대한 평준화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제까지와 다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상진(2005), 평준화정책 효과의 횡단적 분석, 제8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 포럼 발표 논문
- 강상진 외(2005),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강태중(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 강태중 성기선(2001),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 포럼 발표 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미간행 자료.
- 김기석 외(2005),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숙 외(2006),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인숙,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김현진, 최상근(2004),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31(1): 365-383.
-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재정논집 13(1): 149-163.
-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백일우(1999), 입시과외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7(4): 117-136.
- 양정선, 김순미(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 양정호(2003), 중학생의 과외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TIMSS-R의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분석, 한국교육 30(2): 261-283.
- 양정호(2004),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요인 분석: 청년패널조사의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연구, 제 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발표 논문.
-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유형선, 윤정혜(1999),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결정요인-일반계 고등학교 과외사교육

- 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59-171.
-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 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 *경제연구* 22(2): 1-31.
- 이종태 외(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호(2002),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 이주호, 홍성창(2001), 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49(1): 37-56.
- 채창균(2006),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2): 163-179.
- 최상근 외(2003),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수탁연구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05), 고교 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 연구보고서.
- Becker, G.S. and N. Tomes(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47.
- Kim, Hyunjin(2004),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and the college entrance system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Korea,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1(1): 5-24.
- Kim, Taejong(2004), Shadow education: School quality and demand for private tutoring in Korea,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orea.
- Yoo, Yoon Ha(2003), Competition to enter a better school and private tutoring, KDI School working paper series 03-03.

* 논문접수 2008년 5월 10일 / 1차 심사 2008년 5월 25일 / 게재승인 2008년 6월 10일

* 강태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교육기회 균등, 교육정책의 사회학, 교육열, 학교효과 등에 연구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교육기회 불평등, 학교 효과 분석, 대입전형제도, 고등학교 체제, 대안교육, 평생교육 등에 대한 저서 또는 논문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다.

* e-mail: tjgahng@cau.ac.kr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High School Levelling Policy on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An explorat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middle and high school
level analyses**

Taejoong Gahng*

The study explored whether the High School Levelling Policy(HSLP) has any impacts on the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Utilizing the KEEP data of 9th and 11th grades, it tried regression analyses to examine the spending difference between 'levelled' and 'unlevelled' regions. When control is done for students' characteristics,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location,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in levelled regions appeared to be bigger than in un-levelled regions for 9th graders. For the 11th graders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Considering the analysis results being not consistent with conventional expectation for the HSLP, the study discussed the possibility that the HSLP may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It suggested that the third factors such as the competitive situation of college admission and regional markets for shadow education might overshadow the effects of the HSLP. Based on this conjecture, it further suggested that the study on the HSLP effects in the future need to seek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regional comparison.

Key words: High School Levelling Policy, shadow education, private tutoring, policy analysis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부록 표 1> 회귀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

변인	① 월사교 육비 ln	② 전교 석차 점수	③ 일반계 진학/ 예정	④ 대학 진학 계획	⑤ 보호자 학력	⑥ 월소득 ln	⑦ 서울 더미	⑧ 광역시 더미	⑨ 시 더미	⑩ 평준화 더미	⑪ 학생수 ln	⑫ 교사 인식/ 평가
①	/	.25*	.28*	.17*	.28*	.36*	.17*	.00	.02	.19*	.20*	.02
②	.23*	/	.54*	.33*	.27*	.24*	-.03	.06	-.02	.04	.12*	.16*
③	.25*	.42*	/	.38*	.26*	.22*	.07*	-.01	.00	.05	.11*	.21*
④	.21*	.32*	.39*	/	.22*	.19*	.05	.02	-.01	.09*	.12*	.13*
⑤	.35*	.27*	.21*	.20*	/	.36*	.17*	-.01	.03	.24*	.22*	.04
⑥	.49*	.20*	.18*	.16*	.43*	/	.12*	-.01	.01	.16*	.19*	.04
⑦	.22*	-.01	.06*	.04	.20*	.19*	/	-.31*	-.35*	.37*	.20*	-.03
⑧	-.01	.02	.02	-.03	.00	-.03	-.31*	/	-.46*	.46*	.20*	.05
⑨	-.05	.02	-.00	.03	-.05	.00	-.42*	-.52*	/	-.26*	.11*	.00
⑩	.22*	.02	.06*	.02	.22*	.15*	.38*	.47*	-.47*	/	.50*	.03
⑪	.28*	.04	.11*	.06*	.29*	.23*	.19*	.31*	-.04	.62*	/	.01
⑫	-.05	.04	.01	.05*	-.01	-.03	-.06*	.00	.01	.04	-.00	/

* 대각선 아래 쪽은 중학교 3학년 분석에서의 상관계수이고, 위쪽은 고등학교 2학년 분석에서의 상관계수임.

* p < .01